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롯데마트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평가

글 기사윤 사진 김재이

건강한 먹거리에서부터 일상에 다채로움을 더하는 물건들까지.
저마다의 행복을 채우기 위한 발걸음으로 분주한 이곳.
일하는 사람이 안전해야 고객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은
롯데마트를 안전보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내일’은 탄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믿음이 굳건하다.

모두가 행복한 공간을 위해, 안전보건에는 타협 없다

1998년 서울 강변점에서 시작된 롯데마트는 현재 총 176개(국내 111개, 해외 65개 (베트남 15개·인도네시아 5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명실상부 글로벌 유통 기업으로, 괄목할 성장배경에는 신선식품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카테고리별 매장 운영이 있다. 신선혁신품질센터 및 단계별 위생 시스템은 신선하고도 안전한 먹거리 판매를 가능하게 하며 플래그십 스토어 ‘제타플렉스(ZETTAPLEX)’, 창고형 할인점 ‘맥스(MAXX)’, 온·오프라인 통합 매장 ‘스마트 스토어(Smart Store)’, 주류 전문매장 ‘보틀번커(Bottle Bunker)’ 등의 특화된 매장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은 안전한 공간, 직원들의 건강을 전제로 진행된다.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롯데마트

강성현 대표의 강력한 신념으로, 강성현 대표는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안전관리팀을 안전관리부문으로 승격해 대표이사 직할 소속으로 두었으며, 안전관리부문을 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 2팀 체제로 운영해 각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안전관리부문에 위임된 권한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력과 실행력을 높이며 롯데마트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대형마트 최초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으며, 대내외에 롯데마트의 안전보건 경영활동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의 국제 인증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심사 끝에 주어지는 영예다.



외부 시선으로 더욱 정확하게!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의 컨설팅

롯데마트 각 지점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상주하고 있다. 또 본사 안전관리부문 소속 지역별 트레이너 16명이 8개 지역으로 나뉘어 점포 정기 점검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다. 명절 대비 특별점검도 중요한 활동이다. 점검과 진단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즉각적 개선 활동으로 이어진다. 보호구 지급 기준 강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등반이 고사양 배포, 산소농도측정기 배포 및 밀폐공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일례로 꼽을 수 있다. 안전관리팀 이영구 팀장은 이와 같은 내부 점검 및 시정조치뿐 아니라 외부 평가가 롯데마트 안전보건 활동의 실효성을 더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저희가 꼼꼼하고 치밀하게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있을 거예요. 또 특정 부분은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안전보건 활동의 효율성과 적확성을 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롯데마트가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받은 컨설팅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평가. 컨설팅은 안전보건공단의 상생협력프로그램 시범사업 서비스 분야에 롯데마트가 참여사로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보건관리자가 있지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취약한 편이었죠. 제조업과 달리 마트 내 눈에 띄는 화학물질이 적기 때문인데요. 컨설팅을 통해 청소 용품, 도색 제품 등에 유해 화학물질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곳, 파트너사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는 중계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평가는 안산점·은평점·오산물류센터·맥스송천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지점의 컨설팅 결과는 전국 모든 지점에 반영돼 시정됐다. 전 지점의 화학물질과 적용되는 법령이 같은 표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마트 내 사용되는 물질들이 작업환경측정 물질인지, 특별관리 물질인지, 대체 가능 물질인지 등 법적 이슈 대응 및 관리방안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파트너사 CEO 및 관리자에게 교육을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파트너사의 경우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가 드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인식도 적은 게 사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은 파트너사의 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더욱 탄탄히 만들 계획이다.

“안전한 일터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죠. 주기적인 교육과 이벤트, 적절한 상벌제도로 전 직원 및 파트너사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일터, 고객이 행복한 롯데마트가 되도록 저희 안전관리부문의 눈과 귀는 항상 현장을 향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Mini Interview



롯데마트 안전관리부문 안전관리팀 이영구 팀장



Q.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 중 가장 훌륭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당사 인력만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웠던 부분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채워준 것 같습니다. 컨설팅 덕분에 파트너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었죠.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 투자가 당연한 일인데, 합당한 근거 없이 파트너사에 물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기준치를 높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니까요.

Q. 안전관리 체계구축 선도기관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전국 곳곳에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사의 경우 매출액의 0.1% 정도를 안전보건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트 전체 매출액을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이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는다면 그 값어치는 톡톡히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현장 관리를 강화해 산업재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